

병원 자주 가면 실손보험 할증... 음주운전 부담금 상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신 보험시장 창출, 제도개선 추진
건전한 영업환경 등 핵심과제 꼽아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보험상품 지원
스마트이동수단 위험보장역할 확대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2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가치 경영과 소비자 신뢰회복의 실천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올해는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의 손해율과 보험사기, 사업비는 낮추고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가치 경영과 소비자 신뢰회복의 실천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손해보험산업은 제한된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과잉진료, 과잉수리로 인한 손실 확대,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올해 실적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험시장 포화, 손해율 상

승, 소비자 신뢰 문제 등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새로운 보험 시장 창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불안전판매 근절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등을 3가지 핵심과제로 꼽았다.

우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상품 설계부터 심사, 지급까지 보험 전과정에서 변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체특성이나 활동패턴 등 데이터를 활용해 초기 유병자에 대한 특화된 보험이나 자연재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특화형 재난보험도 선보인다.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등산이나 낚시, 골프 등 POS(이용장소 직접 가입) 판매방식을 확대하고 온·오프(On-Of

f) 보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퍼스널모빌리티나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공유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김 회장은 “공공 부문 및 재난피해와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나가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자율주행차와 같은 스마트 이동수단에 대한 위험보장 역할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대한 올바른 보험문화 조성은 물론 과잉진료·과잉수리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제도 개선에 매진할 예정이다.

특히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新)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 유인방안을 모색한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도 추진한다.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도 마련해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불필요한 자동차보험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대리점(GA) 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2021년에 시행됨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설계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AI 기반 인지시스템 등을 도입해 보험사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블랙컨슈머’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손보업계는 경비절감 등 고당도 건축경영에 몰입하고 있고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를 악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금융당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소비자 불편이나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KB손해보험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

뱅크샐러드 통해 직접 가입해야
검진결과 인수심사자료 활용안해

KB손해보험은 금융 플랫폼 뱅크샐러드의 운영사 레이니스트와 협업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KB다이렉트 건강이 아껴주는 암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5월 KB손보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한 후 그 첫 단계로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이 상품은 금융 플랫폼인 뱅크샐러드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 상품이다. 건강한 고객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이 상품의 가입 시점에 고객이 동의만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이력과 결과를 자동으로 확인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확인된 건강검진 결과 중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체질량지수가 ‘정상A’인 경우 보험료를 납입 전 기간에 걸쳐 10%를 할인해준다. 보험가입 직전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만 확인해도 최소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확인된 건강검진 이력과 결과는 보험료 할인에 대한 정보만 활용하고 보험가입을 위한 인수심사자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고객의 구체적인 건강정보는 별도 데이터로 저장하지 않아 고객은 안심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희주 기자

한화생명, 준법경영 나선다... 윤리헌장 다짐

내부통제 강화, 점검시스템 구축
윤리준법기준 위반에 조치강화 등

한화생명이 2020년 투명하고 공정한 정도 경영을 다짐했다. 임직원 전원의 윤리준법 서약 및 윤리헌장 다짐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함께하는 윤리준법 경영에 나선다.

한화생명은 20일 63빌딩에서 윤리준법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승주 사장은 ‘윤리준법 다짐’을 부착한 벽면에 직접 서명하며 솔선수범을 약속했다. 임원들도 준법선서를 하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본사 외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윤리헌장 다짐 및 윤리준법 서약에 참여한다.

한화생명은 2020년 준법경영 문화 구축을 위해 ▲자율적, 예방적 내부통제 강화 ▲효율적 점검시스템 구축 ▲윤리준법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등을 3대 주요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임직원들도 올바른 업무수행 실천과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는데 힘을 예정이다.

여 사장은 “기존의 틀을 깨고 금융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바탕에는 반드시 투철한 윤리의식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며 “글로벌 수준의 준법경영으로 고객, 사회 그리고 한화생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도 경영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왼쪽)이 20일 오전 63빌딩에서 윤리준법 서약식을 진행한 후 임직원 대표들과 정도경영을 다짐하고 있다. /한화생명



(왼쪽부터)유원식 기아대책 회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김혜은 기아대책 홍보대사,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 등이 2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에서 나눔활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감원

금감원, 전통시장서 설맞이 나눔 실천

금융감독원은 20일 KB국민은행, 기아대책과 함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을 방문해 나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으로 떡·육류·건어물 등 생필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상권과 함께 30여 개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이날 망원시장에

서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윤 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해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통합연금포털 전면 개편 ‘온라인 원스톱서비스’

금감원

상품 가입부터 해지까지 한번에
금융사의 건전한 가격경쟁 촉진

앞으로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상품 가입부터 계좌이체, 해지, 연금개시 신청까지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원스톱서비스 구축 등 통합연금포털을 전면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연금지출 수익률·수수료를 비교공시를 개선했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수익률·수수료율 산출기준을 가정에서 실제로 바꾸고, 경과기간별(1·3·5·7·10년)로 공시한다. 또 비교가 쉽도록 금융회사별 수익률·수수료율 공시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공시방식도 기존 권역별 협회를 링크하는 방식에서 포털 직접 제공으로 변경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연금지출, 개

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의 가입과 이체·해지·연금개시 신청도 가능해진다. 가입, 이체 등 서비스 항목별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방문을 원하는 금융회사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간단한 수치 입력으로 중도해지 및 연금수령시 세부담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간편 세금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과거 실적·비용에 대한 공시 외에도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연금지출 보험의 수익률(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과 수수료율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다음달 중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수익률·수수료율에 대한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가격경쟁

을 촉진하고, 수익률이 제고될 것”이라며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연금계좌를 가입하거나 원하는 금융회사로 계좌를 이동하는 등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통합연금포털’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연금포털 내 정보를 민간부문에서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오픈(Open) API 형태로도 공개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